

대학생들의 국어능력과 영어능력과의 관계: 영어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최진숙
(영산대학교)

Choi, Jin-Sook.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English Skills and Korean Skills among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Attitudes towards English.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2), 27-46. There has been a claim that mother tongue skills can affect foreign language learning. However, it is a question whether Korean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are also related to their English language learning. This paper aims at identifying this question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skills and English skills among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study, the scores of two subjects, 'Thoughts and Expressions' and 'General English', from two hundred and forty eight university students were investigated, compared and analyzed. Furthermore, Language Attitude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one hundred and sixty two students who took the courses of the above two subject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based on a belief that those who were in high grade in Korean skills might possibly have favorable attitudes towards English learning, as it is revealed that attitudes towards English are likely to have a close relation with English skill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English skills were closely related to their Korean skills; high achievers in Korean skills showed a high level of English skills, whereas lower achievers in Korean skills demonstrated a low level of English skills. In addition, the result of the language attitude questionnaires indicated that the participants who had a high level of Korean skills produced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s English than those who had a low level of Korean skills.

주제어 (Key words): Korean skills, English skills, university students

1. 연구배경과 목적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국제화를 내세운 ‘영어능력 향상’이라는 커다란 과제 앞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인들의 삶의 무대가 이제 한국만이 아닌 세계로 펼쳐지는 글로벌 시대에 영어능력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가장 유일한 수단이라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믿고 있는 듯하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학들이 강조하고 나오는 영어강의는 영어강의를 들을 수준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버겁기만 하다. 영어 강의로 인해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다는 의심도 있고(오윤희 & 김경은), 이로 인해 영어실력도 전공실력도 어설픈 학생들을 배출하게 된다는 걱정도 있다(손봉석, 2006). 또한 혼란스러운 영어강의 때문에 학생이나 교수들이 다른 학문을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학생들의 세계경쟁력을 키우고 영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지로 영어능력 향상 관련 정책들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영어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 학과에서도 일정부분의 교과과목을 영어 과목으로 할당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학기 내내 영어 학습과 관련된 특강, 경시대회, 토익모의시험 등이 캠퍼스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부응해 교양과목도 철학, 문학 등 대학에서 고민하고 배워야 할 과목들이 영어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들 취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토익 관련 과목, 인터뷰 등을 위한 영어회화 관련 과목, 그리고 비즈니스관련 영문독해 및 쓰기 과목 등은 일반적인 과목이 된지 오래다. 이제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영어를 배우는 곳으로 변질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에 반해 국어능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교양으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대부분 대학국어라는 과목으로 쓰기와 말하기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나마 국어능력 향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교양과목으로 몇 개의 강좌정도 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듯 대학에서 영어능력향상 프로그램들은 활성화되고 있고 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사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영어보다 오히려 국어능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요즘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은 바로 국어 관련 능력임을 기업 인사담당자 7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윤종석, 2005). 이 설문조사에서 부족한 능력이 ‘국어 관련 능력’을 꼽은 응답자(5.6%)가 ‘외국어 능력’을 꼽은 응답자(5.1%)보다 많았고, 국어능력 중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으로는 쓰거나 말하기 등 표현능력을 지적한 응답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창의적 언어능력(20.6%), 논리력(17.7%), 문

법능력(13.0%), 이해능력(6.6%), 국어 관련 교양 지식(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 시험이 도입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43.8%의 인사담당자들이 "필요하다"고 답해 대학 졸업생에게 국어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영어실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국어능력이 부족하면 독창적인 사고능력과 언어구조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깊은 사고력이 필요한 높은 수준의 영어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영어를 잘 하려면 사고체계, 창조력, 독창성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언어 추론이 뛰어나야 하는데 이는 국어능력이 가져다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어능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영어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모국어 발달이 잘 되어 있는 학생일수록 영어수업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예; 최진숙, 2007; Baker, 1988; Cummins & Swain, 1986)를 통해 검증되어 왔다. 영어교육 보다 모국어 교육이 더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들의 모국어 학습 성취도는 학생들의 '언어적 발달'을 의미한다. 언어적 발달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어학습은 한도 해도 효과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모든 언어적 발달의 기초인 국어는 등한시하고 영어능력만 기르려고 하니 영어능력은 쉽게 오르지 않고 있다. 수많은 비용과 시간에도 불구하고 영어능력이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외국어강사들은 현장에서 이미 경험해온 일이다. 이제 비효율적이고 대책 없는 영어학습보다 효율적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어교육 방법을 대학에서 생각해볼 때다.

이 논문은 국어실력이 영어실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따라서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전에 국어교육을 먼저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현재 대학생들의 국어능력과 영어능력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국어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영어능력도 뛰어난 것을 증명해 보이고, 영어능력만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보다 외국어능력의 기본이 되는 국어능력을 먼저 향상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모국어능력과 제2언어 또는 외국어능력이 관련 있다는 것은 초등 및 중고생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실험한 것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국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국어능력과 영어능력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국어 발달이 거의 다 완료되었다고 믿고 있는 대학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국어능력과 영어능력의 상관관계를 밝혀냄으로써 대학생들의 국어능력의 중요성 인식 및 국어학습의 노력

여하에도 영향을 줄 것을 이 연구는 기대하고 있다.

2. 모국어능력과 외국어능력과의 관계

2.1. 국어능력과 영어능력의 정의

일반적으로 ‘국어능력’이란 “체계적인 사고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줄 아는 총체적인 언어능력”(조민근, 2001:1)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보면, “‘국어능력’이란 문화적 맥락 속에 체질화된 능력이며, 역사성과 주제성을 바탕으로 언어 기능의 철저한 통달 위에서 창조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그 내용 요소를 국어적 표현력과 이해력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김대행 외, 2007:2). 이 논문에서의 ‘국어능력’이란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반대학국어를 근간으로 하여 더 다양한 범위로 확장시킨 Y대학의 ‘사고와 표현’이란 과목에서 보여준 표현력과 이해력을 말한다. ‘사고와 표현’이란 과목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이해한 것을 글쓰기와 토론을 통해 언어적으로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수업목표인데, 이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력 및 논리적인 표현활동들이 쓰기 및 말하기로 평가된다. 주로 1학년 교양필수로 듣게 되는 과목이며 인문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이 과목을 맡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국어능력’이란 ‘사고와 표현’ 과목 능력을 의미하며, ‘사고와 표현’ 성적이 좋을수록 ‘국어능력’이 뛰었다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이 성적에는 성실성을 평가하는 부분(출석 20%)도 포함되어 있지만 연구자가 몇 년간 이 과목의 강의를 맡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텍스트분석, 글쓰기, 토론 등을 통한 이해활동과 표현활동(80%)이 평가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국어능력’ 평가라고 정의하는데 타당성과 신뢰성에 큰 의심을 두지 않는다.

반면에 ‘영어능력’이란 일반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영어언어능력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Y대학교 1학년 학생이 교양필수로 들어야 하는 일반 ‘교양영어’를 의미하며, ‘교양영어’의 수업내용은 위의 일반적인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일반(General) 회화 및 독해 그리고 문법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교재를 이해하는 활동 및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영어기능에 대한 숙달이 수업시간에 이루어진다. 평가 또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시험 및 과제, 그리

고 그룹 및 개인 활동 등으로 입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영어능력’이란 Y 대학의 일반 ‘교양영어’의 이해 및 표현능력을 의미하며 위의 ‘국어능력’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영어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2.2. 모국어능력과 외국어습득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모국어능력이 외국어습득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를 새롭게 배울 때 어떤 요인이 가장 많이 언어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논문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 외국어 습득 및 외국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Stagich(1998)는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해당 외국어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고, Reagan과 Osborn(1998)의 연구에서는 수업 내용과 문화적 및 문법적 선택을 하는 선생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진숙(2001)은 영어로의 노출도가 영어능력 습득에 중요 요인임을 증명했고, 심지어 학생들의 언어정체성 인식도 영어습득과 관련 있음이 보고되었다(최진숙, 2003). 그러나 이 논문은 모국어의 능력이 영어능력 향상에 중요한 하나의 요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모국어능력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영어 능력도 뛰어난 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가 조사되었다. 우선 대표적으로 Cummins와 Swain(1986)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영어습득 및 영어능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해 보았다. 그 결과 외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중(개인의 성격, 성별, 화법 등) 모국어 능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모국어 능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영어능력도 뚜렷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이론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수면 밑의 공통 언어능력 모델’(Common Underlying Proficiency Model) (Baker, 1993)이다. 즉, 물위에 떠있는 두 바위(두 언어)가 수면위에서 보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면 밑에서 보면 두 바위는 커다란 하나의 바위에서 올라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두 언어를 사용할 때 별도의 다른 언어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뇌에서 같은 중앙처리시스템에 의해 운용된다고 한다. 모국어는 생각을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기본 도구, 즉 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국어실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각과 음성의 사이를 더 떨어지게 하고 결국 표현과 이해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모국어가 충분히 습득되

지 않으면 영어능력도 향상될 수 없다고 한다.

모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어를 습득하려고 영어국가로 유학을 간 학생들에게서 많은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조기유학생들에게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국어 습득을 충분히 못하고 외국유학을 간 경우, 영어습득이 어려워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배혜경, 2006). 실제로 한국에서 국어능력이 뛰어난, 그래서 우등생이었던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바로 명문대학을 들어가는 사례들은 위의 Baker(1993)의 이론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가기위해 영어회화만 열심히 공부한,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어능력을 충분히 갖출 시간이 없던 열등생은 미국에 가서도 열등생이 될 확률이 높다고 미국의 현지 교육자들은 말하고 있다(배혜경, 2006). 이 보고서에는 모국어 독해력이 높을수록 외국어를 배울 때 외국어 독해력이 빨리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많이 읽고 생각하고 써서 모국어 독해력을 익히라고 권하고 있다. 난해한 문장 및 낯선 어휘와 부딪혔을 때 유추할 수 능력은 반드시 모국어학습에 의해 얻어지는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배혜경, 2006).

이와 유사한 경우로써, 모국어의 기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학생들에게도 영어 학습이 비효율적임이 확인되었다(최진숙, 2007). 모국어를 한참 배워야 할 시기에 유학을 간 학생들은 영어를 배웠던 시간만큼 모국어를 배울 시간을 놓쳐버린 것이다. 따라서 귀국해서 한국에 있는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되었을 때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이 되며,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되는 모국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 학업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자녀를 유학보낸 한 학부모는, 조기유학과 관련해 “어린 시절의 많은 변화가 어떻게 아이에게 도움을 줄지 알 수 없으나, 언어를 바탕으로 배우는 학습과 관련해서는 혼란만 안겨주었다. 어린 시절의 모든 지식은 언어를 통해 습득하게 되는데 국어를 통해 습득하던 것을 갑자기 바꾸어 영어로 습득을 하게 되어 가던 길에 블록(block)을 놓아준 느낌이다”(최진숙, 2007:93)라고 토로해 모국어 능력 부족 때문에 학습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격히 말하면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은 영어-국어, 국어-영어 간의 변환능력을 구비할 때에야 진가를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는 만큼 그 기본에는 국어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인권, 2005). 현재 사회에서 나오는 소리는,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서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인사 기준으

로 국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나아가 채용 할 때 영어를 중요하게 여긴데 비해 실제 직장생활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국어 능력이 더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손봉석, 2006).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학생들의 문제는 영어 능력이 아니라 국어능력이라는 것도 지적되었고, 보고서를 쓸 때 쓰기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휘 및 기본적인 문법에도 취약하다며 국어능력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 언어 문화연구원은 대학과 기업을 대상으로 ‘국어 능력과 직무 능력 상관관계 조사’를 해왔다(손봉석, 2006). 그 결과, 취업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취업 이후 고용 안정과 성취를 위해서는 국어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 기업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은 직장 내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타인의 의사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말이나 글로 자기 뜻을 표현하는 능력’도 부족하다는 평가에 의견을 모았다(손봉석, 2006).

요즈음 한국사회에서의 ‘조기유학’이나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영어공교육’과 관련해 많은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이 국어능력보다 영어능력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 어휘가 풍부해야 영어도 잘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 저자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영어 광풍에 휩쓸리고 있는 한국사회에 일침을 놓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인에게라면, 조기유학이나 언어연수보다 앞서야 하는 과정은 당연히 제대로 된 우리말 공부”이며 “지식의 흡수력이 가장 왕성한 어린 나이에 우리말이 아니라 외국어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영어뿐 아니라 모든 외국어는 어차피 모국어를 바탕으로 삼아서 배운다”고 강조하고 있다(안정호, 2007:123).

위의 내용들을 다시 요약하면, 국어능력이 기본적으로 형성되면 영어능력도 따라가지만, 영어능력이 뛰어났다고 해서 국어능력까지 좋아진다는 것은 아니다. 국어능력은 모든 지식형성에 기본이 되므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려면 국어능력을 우선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것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학에서 국어능력을 소홀히 인식하고 영어만을 중점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히 재고해보아야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대학생들은 역사, 경제, 사회, 과학, 시사 등 여러 학문을 많은 통로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학문의 지식을 습득하는데 언어활동이 필수적이며 나아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고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 사고력이 언어능력의 기본이 되는 상황에서 사고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영어를 먼저 주입한 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2.3. 언어에 대한 태도와 언어의 능력

특정한 언어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그 언어에 대한 태도를 중요한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언어태도는 그 언어의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어에 대한 태도는 무엇으로 측정되어야 할까? 일반적으로 사회언어학에서는 언어태도를 측정할 때 두 가지 이론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하나는 내적인 것, 즉 정신적 또는 심리적 관점(mentalic view)과 다른 하나는 외적인 것, 즉 행동적인 관점(behavioristic view)으로 언어태도를 보고 있다(Fasold, 1984). 그러나 외적인 것, 즉 행동으로 언어태도를 측정하는 것은 행동 자체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언어학에서는 주로 정신적 또는 심리적 관점으로 언어태도를 보고 있다. 이 내적인 관점으로 언어태도를 볼 때, 일반적으로 세 가지 부분을 측정하고 있다: cognitive(thinking: 인식적인 측면), affective(feeling: 감정적인 측면), 그리고 conative(acting: 능동적인 측면)(Baker, 1988:113). 언어태도 측정 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식적 요소들인데,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학습하고 있는 언어가 사회에서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인식이 되면, 그 언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배우고 싶은 의욕 등이 생기게 되는데, 학습자가 이러한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언어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언어를 배우는 학습 상황에서 언어에 대한 호감이란 필요에 의해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식적 측면이란 '필요에 의한 태도'(instrumental attitudes)를 의미하고(최진숙, 2002), 언어의 중요성 인식, 언어에 대한 관심 및 언어를 배우겠다는 의욕, 그리고 특정한 언어에 대한 호감 등이 언어태도로써 측정될 수 있다. 감정적인 측면은 '필요에 의한 태도'라기 보다는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특정한 언어 및 그 언어 구사자에 대한 느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능동적인 측면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준비된 단계를 측정하는 것인데, 보이는 행동 타임을 특징화(characterize) 지을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특정한 언어의 사용 빈도 및 언어능력, 그리고 언어로의 노출도등 행동적인 부분이 측정될 수 있다.

언어태도가 언어학습과 관련되어 있다는 가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효과적인 언어학습과 관련된 연구에 큰 공헌을 한 Gardner(1985)에 의하면, 학습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 좋은 감정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언어의 학습효과는 높아진다고 한다. 특정한 언어에 대한 언어태도의 특징들은 여러 가지 상황(context) (예를 들면 언어접

축경험, 프로그램, 선생, 강의실 등)에 따라 바뀌어 질수 있어도, Gardner(1985)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태도는 학습효과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언어학습 성취도에 의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한다. Tremblay, Goldberg, & Gardner(1995)의 연구결과 또한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가 그 언어의 학습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로써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학생들의 히브리어에 대한 언어태도와 언어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그들이 학습하는 언어, 즉 히브리어에 대한 태도가 언어학습성공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증명해 보였다. 그들의 연구결과 보고에 따르면 히브리어에 대한 좋은 태도를 보인 학생은 그 언어의 능력이 월등했고 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크게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히브리어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들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언어에 대한 태도와 그 언어의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 논문에서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연구(Knuber & Brandsma, 1993)가 이 사실을 지지해주고 있다. Knuber과 Brandsma(1993)은 네덜란드의 초등학교 212명을 대상으로 독일어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언어태도조사를 실시했다. 그런 후, 일정기간을 정해 독일어를 학습시켰고, 학습이 끝난 후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알기 위해 학생들은 테스트를 받았다. 그 결과, 처음 학습 시작 시 독일어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은 예상했던 대로 독일어의 학습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처음에 좋지 않은 태도를 가졌던 학생들은 학습 성취도가 아주 낮게 나왔다. 따라서 이 결과 또한 언어태도가 언어학습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와 언어능력의 관계를 알기 위한 연구는 최진숙(2002)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영어능력이 낮은 대학생 137명에게 언어태도설문지로 조사한 결과, 영어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았으며 배우고 싶은 의욕도 현저히 낮았음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도 영어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호감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영어로의 노출도 분석에서도 노출도가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한 특정한 언어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가지면 그 언어능력 또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특정한 언어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은 그 언어의 편견이나 불안함을 줄여주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의 문화를 잘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학습을 할 때도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언어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은 이미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그 언어와의 경험에 의해 익숙해져

있으면 생기는 심리적 상태이다(최진숙, 2002). 따라서 특정한 언어에 대해 좋은 태도를 보이는 학생은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경험을 가지고 있기 쉽기 때문에 이미 그 언어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점수분석조사

이 연구를 위한 참여자로 Y대학 1학년생들 248명이 무작위로 선택되었다. 이름은 노출되지 않고 일렬로 나열된 248명 학생의 2007년 2학기 ‘사고와 표현’ 과목과 ‘교양영어’ 과목에 대한 점수를 자료로 뽑았다. 이 두 과목의 점수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48명의 ‘사고와 표현’ 점수를 5그룹, 즉, 그룹1: 90-100, 그룹 2:80-89, 그룹3:70-79, 그룹4:60-69, 그룹5:59미만으로 먼저 나누었다. 그런 후, 각 그룹별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교양영어’ 점수의 평균을 내었다.

3.2. 언어태도설문지조사

이 연구에서는 국어능력과 영어능력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점수분석조사 외에, 영어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는 또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언어태도 설문지조사 또한 이루어졌다. 언어태도 설문지 조사에는 자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점수분석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Y대학 1학년 학생 16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연구자가 강의하고 있는 ‘교양영어’ 또는 ‘사고와 표현’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으로써 연구자의 수업 시간에 설문지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미 언급한대로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는 그 언어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가설에 따라, 언어태도 설문지는 영어의 호감도, 영어의 중요성 인식도, 그리고 영어의 노출도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진숙(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언어태도 설문지를 응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난학기 사고와 표현 점수는? ; 1)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2)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느낌은?; 3) 외국인(영어원어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4)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 언어라고 생각하는지; 5) 앞으로 영어를 계속 배울 것인지; 6) 본인의 영어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7)생활에서 의지적으로 영어를 쓰려고 노력하는지; 8) 학교 수업 외에 영어로의 노출도 등이다.

국어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사고와 표현’점수를 쓰게 했다. 그리고 언어태도 설문지는 5-포인트 스케일(5-point scale)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5’는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의미하며, ‘1’은 가장 부정적인 답변을 나타낸다. 아래에 샘플이 나와 있다.

1. 영어공부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매우 좋아 한다 ___:___:___:___ 매우 싫다
5 4 3 2 1

3. 외국인(영어원어민)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매우 좋다 ___:___:___:___ 매우 싫다
5 4 3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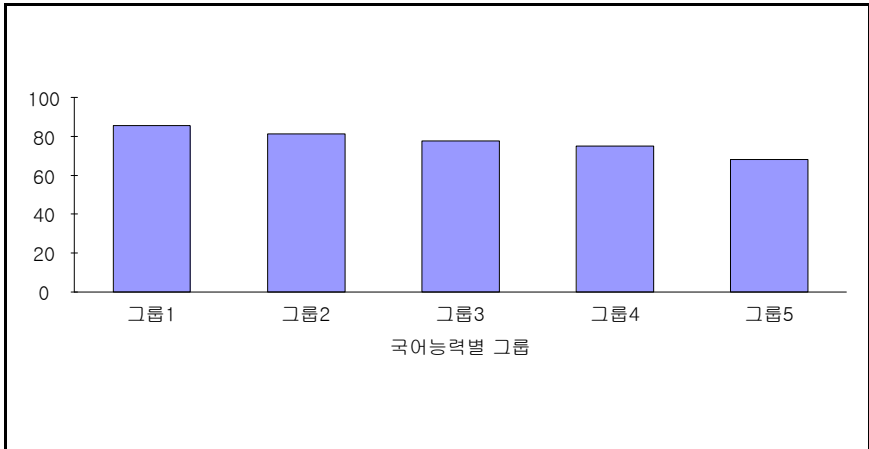
분석할 때는 위의 점수분석조사와 마찬가지로 ‘사고와 표현’ 점수를 5그룹, 즉, 그룹1: 90-100, 그룹 2:80-89, 그룹3:70-79, 그룹4:60-69, 그룹5:59미만으로 먼저 나눈 후, 각 그룹별로 설문지에 나와 있는 각 항목별 평균점수를 구했다. 설문지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본 설문지를 돌리기 전 시험조사(pilot study)가 연구자의 수강생 20명에게 이루어졌다. 그런 후 불필요한 또는 잘못된 질문 등을 다시 수정한 후 본격적인 설문지 조사에 나섰다. 설문지에 대한 분석 및 통계는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 자료는 컴퓨터를 이용해, 최근 사회과학분야의 설문지 통계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SPSS/PC+(Statistical Package of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4. 연구결과와 분석

4.1. 두 과목 점수분석 조사 결과

먼저 248명의 ‘사고와 표현’ 점수 5그룹의 각 해당인원은 아래와 같다: 그룹 1: 90-100(49명); 그룹 2: 80-89(55명); 그룹 3: 70-79(48명); 그룹 4: 60-69(44명) 그리고 그룹 5: 60 미만(52명). 그리고 각 그룹별 영어성적의 평균값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표 1. 국어능력별 영어평균점수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어능력이 가장 높은 90-100점 그룹에 있는 학생들의 영어능력 점수 평균이 8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80-89점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81.41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다음 그룹인 70-79점대가 77.51, 60-69점 그룹이 74.88, 마지막으로 국어능력이 가장 낮은 그룹인 59점 미만그룹이 68.10으로 나타났다. 놀랍게도 국어능력 그룹에 따라 일정하게 영어평균점수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다시 말해 국어능력이 높은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영어 평균 성적은 높았고, 반대로 낮은 그룹에 있는 학생일수록 영어능력도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국어능력과 영어능력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즉, 이 결과들은 위의 언급한 선행연구들(예; Baker, 1993; 최진숙, 2007; Cummins & Swain; 1986)의 결과들을 뒷받침하게 되는데, 이는 국어능력과 영어능력이 ‘공통언어능력’으로 수면 밑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이론을 설득력 있게 만들고 있다.

4.2. 언어태도 설문지 조사결과

그렇다면 언어태도 설문지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보자. 본

조사는 영어에 대한 태도와 영어의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태도가 좋을수록 영어의 능력도 좋다는 가설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영어에 대한 태도는 곧 ‘영어능력’이라고 가정하고 ‘국어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것이다. 먼저 ‘국어능력’이라는 변수(variable)와 ‘영어에 대한 태도’ 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 분석(co-relational analysis)을 해보았다.

표 2. ‘국어능력’과 ‘영어태도’ 변수에 대한 피어슨 상관계수(r)

	A	B	C	D	E	F	G	H
KS	0.413**	0.182	0.276*	0.101	0.444**	0.234*	0.298*	0.129

*p<0.05, **p<0.01

(통계분석에서 ‘p’(significance probability:유의확률)값이 0.05보다 작으면 일반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받아들인다)

r=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KS: Korean skills(국어능력) A:영어공부에 대한 호감도 B:영어에 대한 느낌 C:영어 원어민에 대한 느낌 D: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E:영어공부에 대한 의지력 F:본인의 영어 능숙도 G:영어의 사용빈도 H:영어로의 노출도

위의 표 2에 따르면, 5가지 언어태도 항목에서 눈에 띄는 상관계수를 발견할 수 있다: A(r=0.413, p=0.001), C(r=0.276, p=0.023), E(r=0.444, p=0.001), F(r=0.234, p=0.034), G(r=0.298, p=0.018). 이것은 KS(국어능력) 변수가, 영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어공부에 대한 호감도, 영어원어민에 대한 느낌, 영어공부에 대한 의지력, 영어의 능숙도 및 영어의 사용빈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상관계수가 낮은 B, D, H등을 살펴보면 영어에 대한 느낌, 영어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영어로의 노출도등이 국어능력 변수와의 유의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언어태도 중 인식적인 측면인 ‘필요에 의한 태도’ (instrumental attitudes)와 감정적인 측면(affective)이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즉, 학생들은 중요성을 인식해 영어를 공부할 수 있지만 사실 영어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영어의 중요성 인식은 국어능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듯 하고, 영어로의 노출도 또한 국어능력이 반드시 영어로의 노출도와는 큰 관계가 없음을 위의 상관계수가 암시해주고 있다.

더 구체적인 것을 알아내기 위해 다음은 국어능력별로 각 태도에 대한

점수를 내보았다. 먼저 설문지에 응답한 ‘사고와 표현’ 점수를 먼저 5그룹으로 나누었고 그런 후 각 그룹별 설문지에 나와 있는 항목별로 포인트를 평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 국어능력 그룹별 영어에 대한 태도

	A	B	C	D	E	F	G	H
그룹 1	4.56	4.22	4.19	4.78	4.55	3.98	3.55	3.92
그룹 2	4.21	4.23	4.09	4.69	4.44	3.43	3.62	4.01
그룹 3	4.11	3.98	3.68	4.83	4.42	3.29	3.05	3.99
그룹 4	3.99	4.02	3.79	4.52	4.23	3.11	2.95	3.95
그룹 5	3.50	3.42	3.28	4.58	3.78	2.89	2.50	3.74

(5: ‘매우’ (긍정적) 1: ‘전혀’ (부정적))

설문지조사로 제일먼저 검토해 본 것이 영어공부에 대한 태도였다. 참가자들의 영어공부에 대한 호감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까?”라는 질문이 참가자들에게 주어졌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이 질문에 그룹 1은 4.56으로 매우 긍정적인 답을 보인 반면 그룹 5는 3.5로 낮은 포인트를 나타냈다. 영어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것은 영어공부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성적 또한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 결과로 국어능력 우수자들이 영어능력도 좋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사실 대학에서의 교양영어 수업은 필수과목으로 수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따라서 교실환경 및 시설, 수업시간 (오전 1교시 수업 및 야간 수업 등), 담당강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영어 학습에 대한 호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외적인 환경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국어능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조사 참여자의 내적인 요인, 즉, 영어 학습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온 것은 중요한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느낌이 어떤지에 대한 결과 또한 그룹별로 차이가 나보였다. 물론 일률적으로 국어능력과 비례하지 않고(예, 그룹3: 3.98과 그룹 4: 4.02) 위의 상관계수 또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대체적으로 국어점수가 높은 그룹(그룹 1, 2)에서 영어에 대한 느낌이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나아가 영어원어민에 대한 느낌 또한 우리가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영어원어민에 대한 느낌도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진숙, 2003)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한 언어에 대한 느낌과 그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느낌은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도 발표되었다(최진숙, 2005). 즉, 언어학습 결과물로서 언어적 성과(linguistic outcome)와 비언어적 성과(non-linguistic outcome)가 있다. 비언어적 성과에서 나타나는 '특정언어에 대한 호감적인 태도'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감적인 태도'는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 영어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영어원어민에 대한 태도도 좋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위의 영어에 대한 느낌의 결과를 보면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원어민에 대한 호감도도 높을 것이고, 따라서 국어능력 우수자에게서 영어에 대한 느낌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느낌 또한 국어능력 우수자에게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상한대로 영어원어민에 대한 느낌 또한 그룹 1에서 4.19 그룹 5에서 3.28을 보임으로서 확인되었다. 영어에 대한 느낌과 영어 학습 성취도의 관계를 증명해 보인 연구들(Gardenr, 1985; Knuber & Brandsma, 1993)의 가설이 신빙성이 있다면 국어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영어학습의 성취도도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이 결과로 예상할 수 있다.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면 모든 그룹에서 높은 포인트가 나타났다. 이는 영어에 대해 호감이 있든 없든 영어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호감도 없고 느낌은 싫어도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은 대학생들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어의 중요성 인식은 학습효과와도 관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이보다는 성인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데 학습효과가 더 높을 수 있다. 새로운 언어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보다 학습효과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대부분 어린이들은 당장 영어를 사용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성인이 될수록 영어 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Cooper(1984)의 연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Cooper(1984)의 연구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 중, 배우는 언어가 본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인식한 참가자들은 아주 높은 언어성취도를 보인 반면, 배우는 언어가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한 참가자들은 낮은 성취도를 보여 언어의 중요성 인식은 배우고 있는 언어의 학습효과와 깊은 관련이 있음이 이 연구에서 드러났다. 영어로의 많은 노출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초등학생들은 영어가 본인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고 크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최진숙, 2003).

그렇다면 다음 항목인, '앞으로 계속 영어를 배울 계획이십니까?'라는 질문에 참가자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룹 1이 4.55, 그룹 2가 4.44, 그룹 3이 4.42, 그리고 그룹4가 4.23을 보임으로써 이 항목에 상대적으로 높은 포인트가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것은 그룹5, 즉 국어능력이 우수하지 못한 그룹에서 3.78로 현저히 낮은 포인트를 기록했다. 대부분 이런 항목의 질문에서는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으로 '계속 공부를 할 것이다'라고 답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포인트는 영어를 정말 싫어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어를 계속 배우고 싶지 않은 학생들이 그룹 5, 즉 국어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그룹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에 조사 된 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영어능력이다. 이 문항에서는 모두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본인의 영어실력은 아마도 객관적인 수치, 즉 공인인증 영어능력점수로 자신의 영어능력을 평가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입생들은 공인인증 시험을 자주 치루지 않기 때문에 공인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드물 것으로 짐작된다. 연구자의 경험으로 보면 1학년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도는 2,3,4 학년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영어능력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5그룹 전체에서 낮은 포인트가 나온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능력이 우수한 그룹에서 자신의 영어능력이 뛰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국어능력 우수자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포인트가 나왔다는 것은 자신이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표현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국어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앞으로 학습하게 될 영어수업에서도 자신 있게 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나아가, 본인의 영어를 사용하는 빈도에 대한 질문에서 일정한 비율의 포인트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룹 1에서 영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와 국어가 별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어 주는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국어능력이 우수한 그룹은 언어에 대한 이해와 사고력이 깊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접근이 쉽게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데도 국어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보다 더 영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태도 설문지에서의 영어로의 노출도 조사에서도 의미 있

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국어능력 우수자 집단인 그룹 1의 영어로의 노출(3.92)은 그룹 2,3,4(4.01, 3.99, 3.95)보다 오히려 낮았다. 국어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영어에 관심이 많아 노출도도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표2에 나타난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계수 때문에 국어능력과 영어로의 노출도 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영어로의 노출도는 사회 경제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진숙(2001)의 연구를 보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훨씬 좋았으며,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영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배경까지 포함하고 있는 언어이상의 힘(power)으로 자리 메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어에 힘이 더 실릴수록 현재 한국에서 불고 있는 영어 광풍은 사회양극화 현상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다. 저 소득층 학생들은 영어로의 노출이 적어 영어에서 더욱 소외 될 것이며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마저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경제적 요인으로 영어능력을 올리는 것에 주력하기 보다는 국어능력을 향상시켜 영어능력을 올리는 것에 주력한다면, 사회경제적요인과 영어능력향상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즉 사립영어교육기관에 보내는 비용을 줄이고 국어능력을 먼저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 공적으로 투자한다면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5. 결론

이 논문은 현재 영어능력향상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 대학에서 영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국어능력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증명해보이기 위해 대학생들의 영어 및 국어점수분석조사와 설문지 조사를 다루었다. 첫째, 두 과목, 즉, 사고와 표현 및 교양영어의 각 점수를 서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국어능력이 우수한 그룹에서 영어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영어능력과 관계가 있는 언어태도 설문지를 조사 및 분석해 본 결과, 국어능력이 우수한 집단에서 영어에 대한 호감도 및 중요성의 인식도, 그리고 영어공부의 의지력 등이, 국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국어능력이 우수하면 영어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영어능력도 우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어능력이 높은 학생이 영어능

력도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영어능력은 국어능력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논문의 한계는 양적인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두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에 크게 손상이 가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다. 연구자는 이 논문의 결과를 지지할 수 있는 질적인 조사로서의 그룹 인터뷰(group interviews) 및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s), 그리고 질적인 영어평가 방법(English proficiency test: 쓰기 및 말하기 등)을 통해 두 언어를 직접 실험한 연구를 기대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대학이 먼저 국어능력을 키우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영어를 잘하도록 무조건 시키기 보다는 국어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영어능력도 뛰어날 확률이 높으므로 국어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영어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영어에 자신감이 없고 영어에 어려움을 보인다면 국어능력을 먼저 기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어능력이란 단순히 암기만 해서 하루아침에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어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국어능력이 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영어를 주입시키려고 하기보다 학생들에게 독서를 통한 글쓰기체험과 문화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국어능력은 여러 학문의 지식을 사고를 통해 언어활동으로 이해하고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때의 사고력이 언어능력의 기초가 될 것이며 사고력이란 단순 기능학습으로 체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 정서적 성장과 함께 향상하게 된다. 보다 깊어진 사고력과 지적으로 성장하고 풍부해진 정서는 다른 언어와 문화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깊은 이해력과 사고력, 그리고 지적능력의 틀 안에서 영어실력을 키우는 것이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왜냐면 대학은 영어능력 자체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큰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고력과 이해력이 더욱 더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었다면 영어능력을 키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는, 그래서 글로벌 비전을 가져야 할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장에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이 논문은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대행, 서대석, 김세균, 김종철 & 김동일. (2007). *제 7회 전국 중.고등학교 경시대회-경시대회 시행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배혜경. (2006.8.27). 영어를 잘하려면 한국어 실력부터. Retrieved from <http://yu/cafe.daum.net/vancouverdreams>.
- 손봉석. (2006). 취업은 영어성적 성공은 국어실력이 좌우, *경향신문* (2006.2.28).
- 안정효. (2007). *뒤집어지는 영어(영화로 배우는 영어)*. 서울: 세경
- 오윤희 & 김경은. (2008). 영어로 질문하자 강의실 '침묵', *조선일보* (2008.4.14)
- 윤종석. (2005). 요즘 신입사원, 영어보다 국어가 문제, *연합뉴스*(2005,7,5).
- 이인권. (2005). 영어교육의 필요성 vs 국어능력의 중요성, *새 전북신문* (2005. 7.15).
- 조민근. (2001). 헝클어진 국어발음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중앙일보* (2001.4.28).
- 최진숙. (2001). The effect of the amount of positive contact with English on desire to learn English and English proficiency: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 Korea. *외국어연구*, 20, 125-141.
- 최진숙. (2002). 영어능숙도가 낮은 학습자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 *외국어연구*, 22, 129-144.
- 최진숙. (2003). English proficiency: Decline with the perception of Ethno-linguistic identity. *영어교육연구*, 15(2), 1-27.
- 최진숙. (2005). Changing attitudes to English and English speakers. *영어교육연구*, 17(2), 1-24.
- 최진숙. (2007). 초등단계에 영어조기유학을 하고 귀국한 학생들의 학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언어학*, 15(2), 76-97.
- Baker, C. (1988). *Key Issues in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Clevendon: Multilingual Matters.

- Baker, C. (1993). *Foundation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Cooper, R. L. (1984) Language Planning, language spread and language change. In C. Kennedy (ed.),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education* (pp.124-150). London: G. Allen & Unw.
- Cummins, J., & Swain, M. (1986). *Bilingualism in education*. New York: Longman.
- Fasold, R. (1984). *The sociolinguistics of Society*. Oxford: Blackwell.
- Gardner, R. C. (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ondon: Edward Arnold.
- Knuver, A. W. M., & Brandsma, H. P. (1993). Cognitive and affective outcome in school effectiveness research.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4, 189-204.
- Reagan, T & Osborn, T.A. (1998). Power, authority, and domination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Educational Foundations*, 12(2), 45-62.
- Stagich, T. (1998). Cultural context and meaning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General Linguistics*, 36(1-2), 71-79.
- Tremblay, P. F., Goldberg, M. P., & Gardner, R. C. (1995). Trait and state motivation and the acquisition of Hebrew vocabulary.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7(3), 356-370.

최진숙

626-847 경상남도 웅상읍 주남리 산 150

영산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학과

전화: (055)380-9236

이메일: jinachoi@ysu.ac.kr

Received: 22 February, 2008

Revised: 20 May, 2008

Re-revised: 1 June, 2008

Accepted: 10 June, 2008